



남원의료원, 고위직 공직자 폭력 예방교육 실시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13일, 의료원장 등 고위직 공직자 19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고위직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관리의자의 필수조건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 △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및 주변인의 적극적 개입 실천 방안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반성매매 실천 등 공직 사회 내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관리자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경찰서, 협력단체·유관기관 합동 교통캠페인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교통안전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장계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교사, 학생,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어린이 맞춤형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보행 3원칙인 '서다-보다-걸다'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보행자 주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보행자 보호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 함께 진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군립도서관, 23일 어린이 복합문화공연 개최

순창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연을 오는 5월 23일 순창군립도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뮤지컬 인형극과 매직벌룬쇼, 레이저쇼를 결합한 융합형 공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공연은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공연의 주요 프로그램인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꿈지와 왕룽구멍'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이야기 기반 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매직벌룬쇼와 레이저쇼를 함께 선보여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상의 골프동호회,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

'사랑의 버디기금'으로 완산구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온정 나눠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가 친목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서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골프동호회(회장 나춘균)는 14일 완산구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동호회 회원들이 정기 라운딩을 통해 마련한 '사랑의 버디기금'으로 추진됐다. 해당 기금은 골프 라운딩 중 버디 1개가 나올 때마다 회원과 동호회, 동호회장이 각각 1만 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동호회는 지난해 총 278만 원의 기금을 모았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데 사용했다.

이번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후원금 전달은 물론 배식과 식사 보조 등 현장 봉사활동에도 힘을 보탤다. 회원들은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함께했다.

나춘균 골프동호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버디기금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전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의 즐거움이 지역사회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온기를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의 골프동호회는 2024년 창립 이후 업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회원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정겨운 시간을 함께했다.

나춘균 골프동호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버디기금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전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호회 활동의 즐거움이 지역사회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온기를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상의 골프동호회는 2024년 창립 이후 업종과 세대를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회원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중산신협, '온누리에 사랑' 캠페인 성금 취약계층에 전달

전주중산신협이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금용 실천에 나섰다.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리양노)은 전주 완산구 본점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의 '온누리에 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센터장 정필현)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에 사랑 캠페인'은 신협 임직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47구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날 전달식에는 전주중산신협 전호진 전무와 협력기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정필현 센터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복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전주중산신협은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캠페인에 동참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에게 누적 1,9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

리양노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나눔 실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중산신협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어부바 멘토링, 장학금 지원, 김장김치 및 난방용품 나눔, 취약가정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나은3동·아리올레스토랑, 무료 외식 지원 본격 시작

군산시 나은3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리올레스토랑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외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매월 저소득층 20명 이내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나은3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산의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아리올레스토랑은 그동안 나은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식사상품권을 꾸준히 기부해 왔으며, 이번 무료 외식 지원은 기존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아리올레스토랑은 14일 첫 외식 지원 행사로 관내 저소득 어르신 12명을 초청해 따뜻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본격적인 나눔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시 경암동, 신규 착한가게 2곳 가입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진표)는 14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한 신규 착한가게 2개소를 방문하여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가입한 업체는 약촌청동오리(대표 이혜영)와 대감집(대표 김경미)으로, 경암동에는 현재 총 57개소의 착한가게가 등록돼 있으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외국인 범죄예방 홍보활동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는 모양지구대(대장 황문주)는 최근 관내 외국인 근로자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 밀집지역 및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안내문 배부와 함께 음주폭력, 소음행위, 무단투기 등 생활질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관내 직업소개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예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범죄 및 각종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8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8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